

# 오피니언

## 월/요/광/장

김 용 의



얼마 전 일본의 아사히신문 인터넷판을 들여다보다 눈에 들어오는 기사를 발견하였다. 간 나오토(菅直人) 전 일본 총리가 10월 2일부터 시코쿠(四國) 지방의 '헨로(廻路)'를 다시 시작했다는 내용이다. 그는 지난 5월 재일한국인 정치후원자로부터 정치현금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어 고발당했다가, 10월 3일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즉 그의 시코쿠 지방 '헨로'와 불기소처분 시점이 일치한다. '헨로'란 일본의 시코쿠 지방에 위치한 88군데 특정한 절을 걸어서 순례하는 것을 말한다. 이 '헨로'는 일본에서 근대 이전부터 시작된 전통행사로, 최근에도 병에 걸린 사람들이 병이 낫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또는 일상을 떠나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순례에 나서곤 한다. 샷갓에 위아래로 흰색 옷,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드는 독특한 순례 복장으로 유명하다.

각 절마다 1번부터 88번까지 순번이 정해져 있어 차례대로 드는 것이 관례이다. 그 중에서 13번 순례코스에 들어가는 다

이나치지(大日寺)라는 절은 2008년에 전통무용을 전공한 한국 여성 김명선씨가 주지로 취임하여 한국과 일본 매스컴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간 나오토 전 일본 총리의 '헨로'는 2004년 7월에 처음 시작되었다. 그해 5월

### 전 일본 총리의 '헨로'를 지켜보며

〈廻路〉

에 연금 미가입 문제로 민주당 대표를 사임한 것이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그가 '헨로'를 시작한 이유는 '반성'과 '자기성찰'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의 자기성찰을 위한 순례는 이후에도 계속되어, 2008년 53번에 해당하는 절까지 이어졌다가 이번에 다시 시작되었다. 정치인의 '보여주기' 위한 '반성'이라고는 하지만, 7년 동안 계속된 그의 '헨로'에서 조금은 진정성이 느껴진다. 일본사회의 여론도 그다지 나쁜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나 연수를 떠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정동영 현 민주당 최고위원은 미국 뉴크대르 떠났다가 정계에 복귀하였다. 18대 총선에서 자신의 오랜 텃밭에서 낙선한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도 미국 워싱턴으로 유학을 떠났다. 이후 그는 재기에 성공하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무상급식 주민투표 문제로 시장직을 사퇴한 오세훈 전 서울 시장이 조만간 미국 스탠퍼드 대학으로 유학을 떠난다고 한다. 이제까지 정치적

으로 좌절하거나 위기에 처한 많은 정치인이 이유를 떠난 처신에 비추어보면, 그로서는 당연한 선택이었던지도 모른다.

다른 정치인들의 경우처럼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그에게 정치적으로 재기할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겠다. 향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흑시라도 오세훈 전 서울 시장이 정치적인 아망을 갖고 재기를 꿈꾸고 있다면, 그의 미국 유학이 부디 '반성'과 '자기성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국민은 정치인들의 외유가 본인의 처절한 '반성'과 '자기성찰'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시간이었는지, 아니면 눈가림을 위한 '도피'와 '잠수'였는지 정도는 금방 판단한다. 그 같은 국민의 판단은 이후 본인의 정치적 행보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도피'와 '잠수'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면, 굳이 외화를 낭비하며 외유를 떠날 필요도 없다.

일본 시코쿠 지방의 '헨로'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에도 몇 년 전부터 '한국33관음성지'라는 순례 코스가 만들어졌다. 일본의 '헨로'에 비해 '한국33관음성지' 순례는 시간이 절약된다. 이 가을, 자기 성찰이 필요한 정치인은 관음성지라도 돌려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지. **〈전남대 일어일본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법조칼럼



이 민 아

법적으로 부부인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신고는 돼 있지 않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가 있다. 이 같은 경우에도 부부 중 한쪽이 파혼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사회 관념적·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다. 혼인신고 전제로 하는 법 규정은 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는 것이다.

문제는 혼인신고가 돼 있지 않은 두 사람의 관계가 누가 봐도 부부라고 인정될 정도로

### 이중혼적 사실혼과 법적 보호

부부생활의 실체가 있더라도, 그 중 일방이 법적으로 제3자와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기혼자인 경우에도 위 논리가 적용되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미 존재하는 법률혼이 사실상 이중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두 사람의 관계는 사실혼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관례 입장). 다시 말해 제3자와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만 이미 이혼의 합의가 이뤄져 장기간 별거를 하고 있는 등의 사정으로 사회 관념상 혼인생활이라는 실체를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부부관계가 형해화 되어 있고 서류상으로도 부부로 남아 있다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새로 형성된 이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일방이 이를 청산하려고 하는 경우, 통상의 사실혼관계에서 인정되는 재산분할청구권 등의 법적 보호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우리 민법 체계가 법률혼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장황하게 위와 같은 법리를 논하는 것은, 아직 우리 사회의 일반인의 정서상으로는 혼인신고 하지 않은 채, 법률상 처가 있는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여성에게 돌팔매질을 하는 것이 당연

한 것으로 생각되는 현실에서, 필자가 상담 하였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중혼적 사실혼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누구인지 한번쯤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이유에서이다.

법적으로 아내가 있는 남자로부터 조만간 이혼하겠다는 말만 믿고 수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여성이 더 이상 남자를 믿을 수 없으면서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남자가 재산 분할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냥 살거나 맨손으로 나가라고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그 남자의 법적 아내 역시 상담 여성이 알고 있기에,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었으나 사업을 하는 남자가 많은 돈을 차용하면서 대부분의 공동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데다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 이혼하더라도 돈 한 푼 없이 쫓겨나가거나 이혼 후에도 빚더미에 앉을 가능성이 큰데다 자녀의 장래를 위해 수년 동안 이혼도 못하고 그냥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 남자는 양 집안을 오가면서 말 그대로 일부다처제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위 사실혼 상태(법적으로 법률상 아내와 위 남자가 사실상 이중혼상태라는 사실

을 입증하기 어려울 듯 보였다)에 있는 여성은 전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채 주위사람들로부터 쏟아졌던 몰매 질의 상처만 안은 채 맨손으로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물론, 위 두 여성들은 서로 극도로 증오하는 상태라고 하였다.

수년 동안의 이중혼적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면서 서로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받은 두 여성들의 사례에서 결국 최종적인 피해자는 누구인 것일까? 그들의 관계 속에서 까마득한 미래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까? 이중혼적 사실혼은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변호사인 필자도 도움을 줄 수가 없다는 말에 그 여성의 얼굴은 후회와 좌절 그 자체였다.

그 누구도 어떠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할 때 법이 허용하는지,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 법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행동을 이미 하였던가 하게 될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우리 법체계를 한번쯤은 살펴보는 신중함이 있었더라면, 그 여성의 삶이 지금보다는 좀 더 일찍 더 나은 방향으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하니 안타까움이 더할 뿐이었다. **〈광주지방법원사회 변호사〉**

## 기고



강 순 희

'도가도비상도'. 디자인이 디자인이면, 디자인이 아니라고? 선문답과도 같은 주제에 대한 의문을 안고 광주로 향했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4회째를 맞고 있지만 그간 관심을 갖지 못했는데 유엔 건축하는 두 분이 참가자를 맡았다는 소식을 접한 것이 계기였다.

포항지역건축사회 회원들과 포항시의 도시경관 디자인을 책임지고 있는 테라노버팀과 함께 1박2일의 일정으로 광주를 찾았다. 직업 탓인지 도시 속에서 시민들과 호흡하고 있는 폴리의 실체가 궁금했다. '도가도비상도'라는 주제가 디자인의 본질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됐을 것이라는 추측과 그렇다면 광주 폴리는 그저 보여주기 위한 디자인이 아

### 부럽기만 한 광주 폴리

닐 것이라는 지레짐작이 있었기 때문이다. 피터 아이젠만이 누구인가. 건축하는 사람이라면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듣고 보았을 이 노장이 광주에 한점을 찍어두었다고? 도미니크 페로는 어떻게 후안 헤르소에, 조성통과 승효상에 이르는 한국건축계의 걸출한 건축가들이 참여한 향연은 어디에서도 만나볼 수 없는 특별한 것이다. 이들이 광주라는 도시를, 광주읍성이라는 옛 흔적을 재해석해 풀어놓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바쁜 마음으로 점심을 먹고 신발끈을 동여매는 찰나에 눈 속으로 들어온 밥집 너머의 폴리와, 프란시스코 산인의 사랑방. 그러나 이 작품은 평가를 미뤄야할 듯 하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공사장 펜스 앞의 외로운 섬 같아 보였고 차라리 10m 인근의 버스정류장과 함께 공간을 썼더라면 했을 만큼 쓸쓸해 보였다.

멀리 요시하루 츠카모토의 잠망경이 보인다. 언뜻 장난스러워 보였는데, 그 해답은 뒤

편의 확연건물에서 찾았다. 25m 높이의 탁 트인 시내의 전망을 보게 해주겠다는 만든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도 바쁜 도시인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하는 데 충분했다. 후안 헤르소의 소풍의 오두막은 가끔 집을 지으면서 대지 안의 오래된 나무 한 그루를 살리려는 건축가들의 안타까운 노력들을 보게 했다.

플로리안 베이겔의 시원한 제빵은 가장 확실하게 광주읍성을 연상하는 작품이었다. 나레르 테라니의 광주 사람들의 보자마자 탄성이 나온다. 비좁은 보행로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대나무 숲이 세련된 모습으로 도시에 왔다.

다음 폴리는 지하도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을 따라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보도에 올라섰을 때 저절로 나온 탄성. 면적으로 따지면 공원에 비할까만 여러 동선들이 혼재된 복잡한 도시 속에 이만한 오픈스페이스는 놀라웠다.

거대한듯 피터아이젠만의 09칸은 아직 미완이었다. 특유의 격자 디자인만으로는

디자인의 완성이 아니기에 장소가 갖는 제약이 안타까웠던 작품이다. 정세훈, 김세진의 열린 장벽이다. 떠있는 층의 오브제들은 과거 읍성의 장벽을 형상화했다고 하지만 오브제 아래의 열린 공간은 잔치마당과도 같은 들뜬 기분을 느끼게 했다.

조성통의 기억의 현재화에서는 조용한 그러나 묵직한 존재감을 느낄 수 있었다. 야단스럽게 드러내지 않으면서 장소가 갖는 역사성을 표현하고 있는데, 무심한 시민들의 발길 아래, 은근한 기다림으로 존재하는 느낌까지 받았다. 도미니크 페로의 열린 공간은 직접화법으로, 정자를 세워두었으니 들어와 쉬시라 손짓을 하고 있었다. 명석을 깔아두면 추천 춤도 추지않는 우리네 습성이 사거리 정중앙에 위치한 이 오브제를 앞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풀어 나갈지 흥미롭다.

폴리는 잘 살고 있는 원주민들 틈에 굴러 들어온 돌과 같은 존재다. 빠른 긴장도 유발하고, 빠른 너그러움 풍도 내어주면서 서서히 현연스럽게 원주민이었던 듯 살아가길 바란다. 그나마가 이 대단한 디자인의 잔치마당에 다녀가는 이방인의 아른 배는 어찌 할꼬. **〈포항지역건축사회 건축사〉**

### 가정폭력 갈수록 심각...사회적 관심 더 쏘아야

가정폭력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한다. 가정폭력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1997년부터는 가정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가정폭력법을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요즘 가정폭력은 자녀 학대와 폭행부터 아내 폭행까지, 그 방법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최근의 가정폭력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자 증가와 잘못된 가부장적 남성 우월주의 사회에서 비롯된 것으로 더 이상 가정 내의 단순한 문제라면 간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로마제국의 멸망을 두고 한 역사가는 "로마 가정의 골목에서 연기가 사라지는 순간 로마도 지구상에서 사라졌다"고 말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힘보다 건강한 가정에 달려 있음을 말하는 대목이다.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본단위로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기초가 된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가정은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의 비행, 가출, 미혼모, 알코올·마약 남용, 이혼, 가정폭력 등의 병리적 현상으로 신음하고 있다.

용돈을 주지 않는다고 부모를 때리는 패륜, 횡간에 이혼하거나 배우자를 살해하는 일, 심각한 가정 폭력에 환혼 이혼까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문제가정이 문제가정을 낳는다"는 말은 문제가정이 다음 세대에도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청소년기에 경험한 정서적인 고통은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의 가정 안에 다시 그와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연구에 의하면 부모가 이혼을 했거나 문제 있는 부모를 둔 아이들의 50% 정도가 범죄 등 사회문제를 일으킨다고 한다.

부모는 사랑과 관심과 경험의 보고이며, 자녀의 개성과 독립심을 키워주는 최고의 자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강명순·광주시 광산구 도천동

## 시설

### 교통사고 주범 '난폭운전' 두고만 볼 건가

운전자들의 '난폭운전'이 '문화도시' 광주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F1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 등 국제적인 이벤트가 잇따라 열리면서 외국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신호·속도 위반과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 등 교통 무질서가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현재까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된 범칙금 부과건수가 19만8372건으로, 하루 평균 530건 가량이 적발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2009년과 2010년의 부과건수와 비슷한 수치다.

문제는 난폭운전이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인명 피해로 이어지거나, 다른 운전자를 자극해 '대응 난폭운전'을 유발하는 점이다. 전체 교통사고의 70% 이상이 과속과 끼어들기, 중앙선 침범 등 난폭운전 때문이라는 게 이를 말해 준다. 운전자들이 도로를 달리는 자체가 '공포'나 다름없는 일이다. 외국인들

이 광주를 가장 운전하기 무서운 지역으로 꼽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광주시민의 교통의식 수준이 이 정도다. 이 교통사고 발생 전국 1위, 사망사고 1위, 음주사고 1위 등 불명예 "3관왕"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빨리빨리'라는 이기심이 교통사고를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오명을 쓰고도 광주의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난폭운전을 해도 안 걸리면 그만'이라거나 '나만은 괜찮다'는 식의 그릇된 사고방식과 지역정서가 바뀌지 않는 한 광주의 교통안전화는 요원하다. 경찰도 난폭운전이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행위를 저지하는 데,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근절에 나서야 하며, 신호체계 등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광주가 교통 무질서의 천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갈 수는 없지 않는가.

### 이번엔 아동양육시설서 성범죄라니

'도가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公憤)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광주의 한 아동양육시설 안락에서 또 성범죄와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충격적이다.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죄가 '도가니'의 인화학교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한 것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전면적인 인권실태 조사가 시급하다.

광주 동구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오후 동구의 A 양육시설에서 중학교 남학생 4명이 어린 학생들을 둔기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실은 인근 초등학교 교사가 폭행장면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더욱이 지난달 13일에는 이곳 양육시설 식당에서 일하던 직원의 남편이 중학교 2학년 여자 원생을 성폭행하려다가 적발돼 구속되기도 했다. 가해자는 이날 딸의 친구인 이 원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것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과정에서 가해자의 아내는 양육시설 안에서

피해자를 유박시키기도 했다고 한다.

사실상 장애인 시설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은 인권의 사각지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설 운영자와 직원들의 반인륜적 행태와 관리감독 당국의 직무유기, 그리고 사회의 무관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원생들에 대한 성범죄, 폭행 등 각종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보육시설 역시 그동안 원생 간 폭행이 반복되고, 주요 임직원이 자주 교체되는 등 운영상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광주 동구청은 사건이 터진 후에야 시설장 교체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인화학교와 똑같은 전형적인 뒷방정정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차제에 장애인 시설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실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또한,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을 경우 수사되듯 강력히 대응해 인권침해 사례를 뿌리뽑아야 할 것이다.

## 無 等 鼓

벨기에의 쇠뿔한 공업도시 허름한 트레일러에서 알콜중독자인 엄마와 단둘이 살아가는 10대 소녀 로제타는 다른 사람처럼 직업을 갖고 집다운 집에서 사는 평범한 삶을 꿈꾼다.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보지만 어렵사리 취직된 공장에서 납득하기 힘든 이윤율로 금세 해고되고 만다.

와글와글에 주박보조로 취직하지만 며칠 만에 사장 아들이 데리고 간다. 급기야 판매금의 일부를 빼돌려온 동료 종업원을 사장에게 고발하고, 그를 대신해 일하게 된다. 자괴감이 시달리던 로제타는 엄숙한 현실에 절망하며 가슴을 틀어 놓고 생을 마감하려 한다.

1999년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장-피에르 다르렌, 뤽 다르렌 형제 감독의 영화 '로제타'(Rosetta)의 줄거리다. 이 영화는 벨기에 국민들의 심금을 울렸고, 정부는 청년고용할당제인 '로제타 플랜'을 도입한다.

마이클 무어는 2007년 다큐멘터리 영화 '시크'(Sicko)를 통해 미국 의료보험

체계의 부당함을 고발한다. 개봉 이후 의료보험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졌고, 오바마 대통령은 전국민 의료보험 가입을 골자한 개혁안을 내놓았다.

한국 영화로는 처음 1000만 관객을 달리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보지만 어렵사리 취직된 공장에서 납득하기 힘든 이윤율로 금세 해고되고 만다.

와글와글에 주박보조로 취직하지만 며칠 만에 사장 아들이 데리고 간다. 급기야 판매금의 일부를 빼돌려온 동료 종업원을 사장에게 고발하고, 그를 대신해 일하게 된다. 자괴감이 시달리던 로제타는 엄숙한 현실에 절망하며 가슴을 틀어 놓고 생을 마감하려 한다.

1999년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장-피에르 다르렌, 뤽 다르렌 형제 감독의 영화 '로제타'(Rosetta)의 줄거리다. 이 영화는 벨기에 국민들의 심금을 울렸고, 정부는 청년고용할당제인 '로제타 플랜'을 도입한다.

마이클 무어는 2007년 다큐멘터리 영화 '시크'(Sicko)를 통해 미국 의료보험

## 진실의 힘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元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李康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1211 광주광역시 동구 남로동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집부	2200-649	여론매뉴	2200-621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대표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대표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경정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이메일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